

현대 헤어스타일과 의상에 나타난
Junk Art적 디자인의 특성
The Characteristics of Junk Art Design in Modern Hairstyle
and Clothing

이수인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Lee, Su I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 the focus on junk art the relation between hairstyle and dress, and fine art which is one of the driving force of fashion change.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take into theoretically consideration junk art in the trend of art and to take into documental consideration the trend of junk art reflected on hairsyyle and dres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there's a trait of poverty. This means using something deserted in our life and expands a new expression world which introduces a new, poor beauty, refusing a existent, rich and arranged one.

Second, there's a trait of machinery. In Junk Art, according to the appearance of the beauty of machines, it creates and introduces a mechanic aesthetics as a new- formative art by using industrial by-product.

Third, there's a trait of nature. By Junk Art, there appears a trial to restore nature which has been neglected under the name of developing science technology. This expresses natural junk factor by emphasizing the nature itself using natural by-products.

The Junk Art has influence on hairstyle and clothing and expands the expression world by some new ways and recognition about the benefaction and the damage of modern civilization.

Key Words : junk Art, hairstyle and clothing, poverty, machinery, nature

Corresponding Author : 이수인
Tel. 042)487-6588
H.P. 018-423-8588

I. 서론

20세기는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문명과 산업사회의 구조속에서 풍족한 물질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대문명으로 인하여 예술의 표현세계는 기존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다양한 오브제의 도입과 표현방법을 통해 예술세계의 확장을 가져왔다. 새로운 소재의 도입으로 예술을 이미지에서 오브제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고 사회적, 예술적으로 배척되고 소외된 저속하고 평범한 것들까지 예술로서 승화시킨 정크아트(Junk Art)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예술분야중 하나인 복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차원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복식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가치와 사고의 시각적인 상징물로서 의상은 물론 머리장식, 화장, 문신 등 장식적인 것까지 포함하며 이는 당시의 사회문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복식문화는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메이크업 등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전체적 조화가 중요한 토타패션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기성복 착용이 일반화 되면서 자신의 변화를 의상보다는 보다 손쉽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복식에 있어서의 헤어스타일과 의상은 토타패션에 따라 나름대로의 조형성을 추구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정치, 경제, 예술, 종교 등으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다각적인 표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예술 즉, 각 미술양식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헤어스타일과 의상이 한 시대의 패션 변천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순수미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미술사에 나타난 정크아트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크아트의 특성을 분류해 보고 둘째, 그 특성들이 헤어스타일과 의상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크아트와 미술사조에서 정크아트의 위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복식에 나타난 정크아트적 경향을 헤어스

타일과 의상을 중심으로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정크아트의 개념

도시문명은 예술에 있어서 새로운 소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서 오브제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고 일상생활과 환경이 곧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은 사회적으로 배척되고 변두리로 밀려난 거칠고 저속하며 평범한 것들을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현대문명 사회의 새로운 미술양식인 정크아트를 등장하게 하였다.

정크아트란 폐물, 잡동사니, 고철, 등 현대 사회에서 버려진 물체 등을 이용하여 작품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여 때로는 스크랩 아트(scrap art 英)라고도 불려진다.¹⁾

Henry Rasmusen과 Art Grant는 그들의 저서 「Sculpture from Junk」에서 인간에 의해 사용되고 버려진 것 뿐만 아니라 한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다른 목적에 사용됨으로서 목적이 변경된 품목들과 돌, 조개껍질, 나무 조각같은 발견된 자연의 오브제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한다.²⁾

2. 정크아트의 특성 및 배경

인간의 폐품을 이용한 빈곤적 특성과 생산된 것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진 산업부산물로 이루어진 기계적 특성, 그리고 자연에서 발견되어지는 자연적 특성으로 정크의 특성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크아트의 특성은 20세기 초 입체주의자들의 뼈빠에 콜레(papier colle)와 콜라쥬(callage)

1) H.H Arnason(1970), Modern Art. new york, p. 567.

2) Henry Rasmusen and Art Grant(1967), Sculpture from junk (new york : Reinhold Publishing corporation) p. 112.

에서 비롯되어 미래주의자들에 의한 기계미학의 도입을 가져왔다. 또한 다양한 오브제의 도입과 표현방법을 제시한 다다와 초현실주의에 의하여 그 기초를 다지게 되었으며 20세기 초의 현대문명을 배경으로 하여 기존의 회화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다양한 표현방법과 오브제를 통하여 새로운 예술의 확장을 이끌었다.

이러한 다양한 정크아트의 출현을 야기시킨 미술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분석주의의 입체주의자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현실적 이미지 회복의 수단으로 신문지, 악보, 성냥갑 같은 인쇄물을 캔버스에 첨가시켰다. 이러한 뼈빠에 꼴레를 기초로 하여 현상적인 묘사와 실제의 차이를 탐구하는 수단으로 발명된 꼴라주는 20세기 미술양식의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현실적인 물질을 직접 화면에 가져옴으로써 화면에서 잃어버린 현실적인 이미지를 회복한다는 의도와 그에 못지 않는 표현의 풍부한 효과를 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입체주의자들의 꼴라주와 오브제의 도입 시도는 “그린다”는 오랜 역사의 기본적인 표현방법에 커다란 변혁과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와 브라크(George Braque 1882-1963)는 뼈빠에 꼴레 작품을 바탕으로 시작하였다. 특히 피카소는 꼴라주 작품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을 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이는 절대적 미의 전통을 파괴하고 재료 한계의 극복과 실물을 화면에 도입함으로써 현실성 회복을 추구하였다. 입체주의의 꼴레주는 일상적인 물체를 화면에 끌어들이는 점에서 정크아트의 배경적 의의를 지니며 그 후 미래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미래주의는 현실과 환경속에서 새로운 미의 원천을 찾는다는 점에서 정크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미래주의 예술은 기계과학문명에 입각한 가치관에서 쇠신하고자 하면서 다이나미즘, 속도감 등의 미를 주장하며 과거의 미학과 단절된 기계시대의 새로운 미를 인간의 미의식의 기초로 삼고 있다. 보치오니(Umberto Boccioni 1882-1916)에 의해 발표된 ‘미래파 조각 기술 선언’에서 그는 “종래의 전통적 재료가 아닌 유리, 나무, 하드보드, 철, 피혁, 거울, 전구 등 모든 재료를 자유스

럽게 이용할 수 있다³⁾”고 하여 입체적 회화양식의 급속한 발전을 초래하였다. 즉 미래주의는 동적 감각에 의한 새시대의 미의 창조로 다이다믹한 속력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기계의 움직임이나 도시의 소동, 사람의 유동적인 움직임 등이 직접 시간성과 공간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적 감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주의는 꼴레주 기법과 다양한 오브제의 표현세계를 넓혀 정크아트의 배경이 되는 동시에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과 과거문화에 대한 항의를 나타내는 다다(dada)에 영향을 미친다.

다다는 허무와 부정의 정신속에서 기존의 모든 정신적 가치와 그 산물을 초월하고 주어진 절대적 기준에 부합시키지 않는 제멋대로 표현에 그 특성이 있다. 이러한 다다의 영향으로 새로운 예술형식과 소재를 추구하여 그 후 어떤 기법, 어떤 절차에도 편견을 갖지 않고 개별 예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뒤상(Marcel Duchamp)과 피카비아(Francis Picabia)에 의해 전개된 다다운동으로 레디-메이드(ready-made)가 출현하게 된다.

뒤상은 ‘변기’등의 기성품을 이용한 레디메이드를 출현시켰는데 이는 하나의 공업제품이 일상적인 맥락으로부터 독창적인 방법으로 이탈되어 본래의 기능을 철저히 상실한 경우의 오브제를 의미한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던 물체가 일상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탄생된다는 것이다.

또한 슈비터즈(Kurt Schwitters)는 ‘메르즈(merz)’라는 작품을 통해 거리에 내던져진 물체의 파편들을 화면에 붙였다. 그는 1920년에 10년 세월이 걸려 완성한 ‘메르즈 기둥’의 제작을 통해 앓쌍블라주(assemlage)와 집적의 기법을 기초화시켜 전통회화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시도했다.

카린토마스(Karin Thomas)는 메르즈 기둥을 두고 “조각, 꼴라주, 회화를 조합시킨 것으로서 모든 사회의 기능적인 질서를 이탈하여 생의 유연성을 반영하는 거울로서 다다정신의 소산”이라고 평가했다.⁴⁾

3) Dictionary of Art II(1969), Megraw Hill, London, p. 456.

4) Karin Thomas(1979), 20세기 미술, 野村太郎(譯),

〈표 1〉 정크아트의 배경적 요소

미술사조	표현기법	특징	대표적 작가
입체주의	빠빠에 콜레 폴라주	일상적인 물체를 화면에 최초로 도입하면서 '그린다'는 오랜역사의 기본방향의 전환계기를 마련	피카소 브라크
미래주의	현실과 환경속에서 확장된 폴라주	다이나미즘, 속도감의 미로 과거의 미학과 단절된 기계시대의 새로운 미를 도입	보치오니
다다주의	레디-메이드 앗쌍블라주	허무와 부정의 정신속에서 기존의 모든 정신적 가치와 그 산물을 초월하고 절대부합 시키지 않는 제멋대로 표현이 그 특징	뒤상 파카비아 슈비터즈
초현실주의	앗쌍블라주 데페이즈망	거의 모든 기존의 오브제들을 동원하여 표현하는 표현세계를 확장	막스 에른스트 호앙 미로

다다의 자연스러운 이행으로 연결되어진 초현실주의는 종래의 사회적 습성이나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제약된 상상력이 세계에 절대우의를 인정하는 것이고 꿈이나 환상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점에서 그 원리를 찾을 수 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심층부에 자리하는 내부세계를 탐구하는 추상표현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외계에 어떤 질서나 권위도 이 주관적 표현을 규제하기 못하였으나 1960년대에 '자기 내면 세계의 탐구'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외부적 현실세계로 눈을 돌려, 콜레주의 가능성에 대한 재탐구가 일어났다. 이것은 곧 앳쌍블라주이다.

미국의 평론가 Willian Seitz가 1961년 뉴욕 미술관에서 앳쌍블라주에 대해 "칠하거나 그리거나 소조 또는 조각되는 것이라기 보다 주로 조립되는 것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그 구성요소는 이미 형성되어진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예술의 재료로서 의도된 것이 아닌 자연적이거나 제품화된 재료, 오브제 또는 그 단편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⁵⁾

앗쌍블라주는 콜레주와 빠빠에 콜레보다 좀더 포괄적인 용어로서 이것은 집합과 병치, 구성과 절단, pasting과 unpasting, 포토몽타주 등과 같은 기교들을 포함한다.⁶⁾ 이것은 단편의 모음 그자체 이상의 유기적 현상과 외계의 연속된 전체에 가까워진다는 사상을 내포하면서 작가의 창작력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크아트의 예술적 발달과정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친 예술사조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이와 같이 빠빠에 콜레, 폴라주, 레디-메이드, 앳쌍블라주의 기법등과 함께 회화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총체예술로서 급진적으로 발달하게 되고 예술작품이 작가의 구성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혼자서 제작해야 한다는 기존의 개념에 대한 미의식의 확대, 변화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쓰고난 빈 병이나 자동차의 폐물까지도 조형적인 소재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예술경계의 변환으로 정크아트의 등장은 당연한 것이다.⁷⁾

정크아트는 형식과 표현의 자율성을 통해 현대 미술에서 독특한 표현양식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복식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크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복식에 나타난 표현과 형식에 대하여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I. 헤어스타일과 의상에 표현된 정크아트적 디자인의 특성

본 연구는 Henry Rasmusen과 Art Grant가 그들의 저서 「Sculpture from Junk」에서 밝힌 넓

東京, 美術出版社, p. 111.

5) 유현정(1996), 정크아트의 특성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6) 위와 같음, p. 10.

7) 김은주(1991), Junk Art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p. 3.

은 의미의 정크아트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현대 헤어스타일과 의상의 디자인 표현방법을 크게 3가지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간에 의해 사용되고 버려진 것을 이용한 빈곤적 특성,

둘째, 한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기계적 특성,

마지막으로 돌, 조개껍질, 나무, 동물의 털등의 자연적 부산물을 이용한 자연적 특성이다.

1. 빈곤적 특성이 나타난 정크 표현

현대 디자인의 가치와 발전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환경문제에 의해서 새로운 디자인의 흐름을 제시하였다. 환경문제에 대한 디자인은 재활용 디자인의 측면을 대두시키면서 기존의 외부적 장식을 통한 풍요로운 완벽함에 대한 것과는 달리 자원절약과 재활용의 의지를 나타내는 빈곤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디자인이 선보이게 되었다. 이것은 정크적 미학으로 폐허의 미인 동시에 지금껏 서구 전통미가 추구해온 표면적인 아름다움과는 다른 것이다.

복식에서 환경적 요소는 1960년대 히피들이 반전과 사랑을 외치면서 기계문명에 대한 거부로 수공업적인 것을 추구하고 자연과 대지로 돌아가라고 표방하면서부터 나타난다. 일부러 낚아서 헤어졌거나 일부러 찢어 입은 것으로부터 중고시장의 군수용품을 구하여 낡은 옷을 착용하여 빈곤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70년대 말 반항적인 이미지와 일상용품을 이용하여 코디네이트시킨 핑크룩으로 이어졌다.

핑크는 아프리카를 동경하여 모하칸 헤어스타일과 바디페인팅을 하였고 무산계급의 상징인 남루한 옷차림 즉 중고가게에서 1940년대의 의복을 구입하거나 떨어진 옷을 패치워크하였으며 주로 금속단추와 지퍼가 많이 달린 검정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착용하였으며 고의적으로 옷을 찢거나 더럽혀진 옷을 밖으로 꺼내어 고정 시켜 입었다. 그리고 편, 플라스틱, 옷걸이 못, 텔레비전의 부품들, 면도날 등 사소하고 하찮은 물품들이 핑크패

션이란 범위내에서 등장했으며 또한 저가품이면서 유용가치가 없는 것들을 디자인에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미의식에 충격을 주었고 추한 것, 일상적 생활의 하찮은 것들에서 새로운 미를 발견하도록 하였다. 핑크는 그들의 내적 갈등과 사회문제 즉 기아, 핵무기, 사용의 저지, 환경오염, 물질 만능의 저주 등을 복식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⁸⁾

오늘날에도 기존관념에 대한 반발과 자연회귀, 환경오염, 기아 등을 상징하는 히피패션과 핑크패션의 감각을 모방하여 그중 빈곤적 요소를 도입하여 새로운 정크적 복식을 계승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유행감각 뿐만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재활용 운동의 참여로서 발생하는 복식의 빈곤적 정크아트의 요소인 것이다.

복식의 표현방법은 외부의 오브제 도입이나 자체의 변형을 통해서 빈곤적 정크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의상에서 낡은 옷의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하여 패치워크(그림2)나 울을 풀리거나 찢어지거나 봉제선이 걸로 드러나 보여 시접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실밥이 너털거리는 패션으로 표현하거나 직물이외의 피혁, 종이, 비닐, 플라스틱, 셀로판, 금속판 등의 폐기물을 이용한 다양한 소재를 통해 빈곤한 이미지를 표현한다(그림1, 3, 4).

헤어스타일에도 마찬가지로 빈곤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 실밥 너털거리는 의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돈되지 않는 형클어진 헤어스타일과 거친 염색기법을 이용하여 지저분하고 거칠며 빈곤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또한 여러 폐기물 소재를 이용한 장식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즉, 일상용품의 지퍼나 깡통 등을 머리에 장식품으로도 입하거나 이것을 재활용하여 다시 재생시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머리장식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정크아트의 폐품미학은 빈곤적 이미지를 표출하면서 그런지룩, 푸어룩, 히피룩, 핑크룩 등과 같이 기존미를 거부하고 새로운 소재의 도입으로 새로운 복식인 의상과 헤어스타일의 표현 세계를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8) 김문숙, 최나영(1998), 패션에 표현된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특성, 복식문화연구 6(2), p.167



〈그림 1〉 패션감각탐구, p. 130.
재활용한 강통을 이용한 머리장식



〈그림 2〉 COLLEZIONI Donna, No. 53, p.313
Tokuko 1er vol
패치워크 효과의 직물



〈그림 3〉 COLLEZIONI Donna, No. 53, p.276
김철웅
재활용 전지를 이용한 머리장식



〈그림 4〉 NODAIN No.107(1997 S/S), p.28.
Marithe & Francois Girbaud
지퍼를 이용한 머리장식

2. 기계적 특성이 나타난 정크표현

기술과 예술이라는 개념 대립은 예술이 본질적으로 미적 창조를 목적으로 추구하는데 반하여 기술은 효용을 가진 것을 생산한다는 본래의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가 그 목적에 적합하게끔 재료를 가공하고 형성하는 작용에 의해서 유효한 작품 내지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능력 또는 활동으로써 모두 기술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⁹⁾

따라서 20세기 예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과학기술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현대로 가까워지면서 20세기 예술가들에게 작품제작 과정의 복잡성은 다원화, 전문화 되어가는 현대의 사회구조속에서 과학자나 공학자의 조언과 기술적 도움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복식디자인의 기계적 미학의 도입은 정크아트의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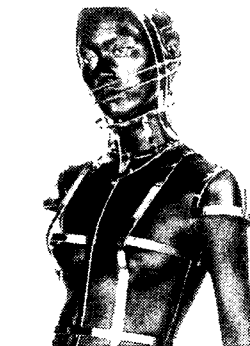
9) 이효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기계미학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1), 복식문화연구 6(2), p.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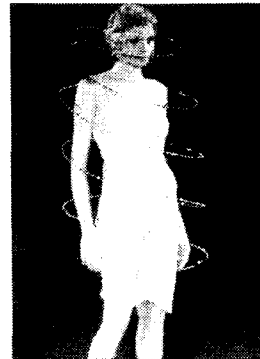
〈그림 5〉 NODAIN No.111(1999 S/S), p. 159.
Alexander McQueen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머리장식



〈그림 6〉 NODAIN No.110(1998 F/W), p. 26.
Alexander McQueen
금속성의 스커트



〈그림 7〉 패션감각탐구, p. 38.
금속을 이용한 머리장식



〈그림 8〉 MODAIN, No.111(1999 S/S), p.156
Alexander McQueen
금속성의 철사를 이용한 의상과 헤어스타일

래의 목적이외도 사용을 하는 산업적 부산물이 복식디자인에 도입되는 것에 비롯되었다.

따라서 현대 복식에 있어서의 정크적 기계미학의 도입은 새로운 조형미를 탄생시키고 과거의 미학과 단절된 기계예술의 도입을 가져왔다.

기계미는 산업수준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당시의 산업사회수준에 대한 척도이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 놀라운 발전과 성과를 갖는 현대 기계미는 컴퓨터 공학과 신소재 개발, 인공지능 등의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의 기계문명산업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와 구조를 가져와 그 자체의 미학을 탄생시켰다.

의상에서의 기계적 정크요소는 산업적 부산물

인 기계폐물, 금속, 유리, 플라스틱, 종이, 비닐등이 폐품류를 이용한 오브제 도입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합성수지, 알루미늄과 같은 신재료들의 기계적 이미지로 과거의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예술적 관심을 창출시켰다(그림5, 6, 8). 이것은 재활용과 자원절약의 빈곤적 정크 요소로의 표현과는 달리 산업적 부산물로 표현한 기계적 정크 요소의 의상은 미래지향적이고 인공적인 이미지로 현대기계문명산업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헤어스타일의 기계적 요소는 의상과 유사하게 표현되어지는데 각종 산업부산물들이 머리장식에 도입되어 인간의 기계화된 모습을 형상화시켰으



〈그림 9〉 MODAIN, No.110(1998 F/W), p. 26
Hussein Chalayan
플라스틱을 이용한 머리장식



〈그림 10〉 MODAIN, No.107(1997 S/S), p.82
Helmut Lang
깃털을 이용한 머리장식

며 기계적 표현을 추구하였다. 즉, 유리, 금속, 플라스틱, 기계폐물 등의 기계적 오브제를 이용하여 머리장식을 하였으며 반짝이는 메탈같은 효과의 세팅제나 기계처럼 끈고 정확하게 컷트한 헤어스타일은 기계적 산업부산물과 같은 기계적 효과를 자아내는데 사용되었다(그림5, 7, 8, 9).

이와같이 기계적 부품 또는 기계적 소재 또는 기계적 모습으로 과거의 단절된 기계미를 표현함으로써 의상과 헤어스타일의 표현세계를 넓혔다.

3. 자연적 특성이 나타난 정크 표현

현대는 그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문명과 산업사회의 구조속에서 풍족한 물질문명의 혜택을 추구함과 동시에 물질만능주의에 억눌린 인간성 회복 및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의식의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인간은 무분별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자연을 물질 생산의 소재나 도구로서 여겨 이들을 훼손시키는데 무감각하였다. 따라서 자연으로부터 격리되어진 인간에게 자연을 인식하게 하고 자연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사회 각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¹⁰⁾

특히 복식은 인간의 미적 가치관에 태도를 포함한 의지와 의식이 표명되어 나타나는 외적 조형물로서 자연주의와 에콜로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자연회귀, 원시적 야수성과 토속성에 대한 동경, 비서구문명과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현대사회의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자연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연적 부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패션에 도입하거나 즉 자연의 회귀심리의 민족과 지역을 초월한 문화의 애착으로 나타나는 자연주의는 정크아트的重要한 요소인 것이다.

또한 자연 그대로의 소박한 무늬와 액세서리에서 발견되며 잉카의 문양, 아프리카나 아메리칸 디자인의 기하학적 문양, 동물의 이빨, 돌, 조개껍질 등의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현대 문명 사회의 인스턴트화를 거부하고 전원을 꿈꾸고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적 오브제 도입을 통한 정크의 자연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의상에서는 자연적 모티브를 의상에 도입하거나 또는 천연소재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인체의 곡선을 살려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는 편안한 실루엣을 통하여 자연주의를 표현하고자 한다(그림12, 13).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자연적 정크요소는 동식물의 자연적 부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입하여 장식효과를 나타낸다. 즉, 식물의 가지나

10) 이경아 전해정, 복식의 자연주의 양식에 관한 연구, 복식 37호.



〈그림 11〉 Hair Flair, June, 1997, p. 31. Clynol
조개껍질을 이용한 머리장식



〈그림 12〉 MODAIN, No. 111(1999 S/S), p.128
Alexander McQueen
꽃을 모티브로한 디자인

꽃, 조개껍질, 동물의 깃털등을 이용한다. 또한 인간의 머리 그 자체를 자연스럽게 흘려내려 자연주의를 표현한다. 이때 건강하고 윤기있는 모발을 강조한다(그림10, 11).

이와같이 자연적 부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조개껍질, 나무, 꽃등을 이용한 헤어스타일과 의상의 장식과 자연적 모티브로 소재등을 디자인하거나 인간 그자체를 전혀 가식하거나 가공하지 않는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적 정크요소를 표현하였다.



〈그림 13〉 MODAIN, No. 110(1998 F/W), p.151
Anna Molinari
자연스러운 실루엣 강조

〈표 2〉 헤어스타일 및 의상에 나타난 정크아트적 표현

종류	특성	헤어/의상	오브제도입/표현방법
빈곤적	인간에 의해 사용되고 버려진 것을 이용	헤어스타일	패치워크, 울을 품, 구멍, 일상용품의 폐품사용등 인위적으로 지저분하고 빈곤한 이미지.
		의상	일상용품의 폐품사용하여 머리장식, 헝클어뜨려 지저분하고 빈곤한 이미지.
기계적	산업부산물을 이용	헤어스타일	유리, 금속, 플라스틱등의 산업부산물이나 신소재를 이용한 기계미, 산업부산물의 재성형 가공을 통한 기계미.
		의상	산업부산물의 오브제를 이용하여 머리장식, 반짝이는 세팅제나 정확하고 곧은 헤어라인 컷트를 이용한 기계미.
자연적	자연부산물을 이용	헤어스타일	조개껍질, 돌, 동물의 털, 이빨등의 자연부산물을 의상에 도입, 자연물을 모티브로 디자인에 응용, 인간신체를 자연적 오브제로 삼아 편안한 실루엣으로 강조.
		의상	자연부산물을 이용하여 머리장식, 가식이나 가공없이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크아트는 헤어스타일 및 의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표2>와 같다.

IV. 결론

현대의 풍족한 물질문명은 예술의 표현세계를 새로운 오브제도입과 표현방법을 통해 확장시키면서 정크아트의 새로운 예술세계를 탄생시켰다.

특히 복식에 있어서의 헤어스타일과 의상은 토탈패션의 경향하에 따라 나름대로의 조형성을 추구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정크아트의 영향으로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세계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현대 헤어스타일과 의상에 표현된 정크아트적 디자인의 특성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적 특성이 나타났다. 정크아트의 일상적 생활에서 사용하고 버려진 것을 이용한 빈곤적 요소는 폐품미학으로 기존의 풍요롭고 정돈된 미를 거부하고 빈곤한 새로운 미를 도입하는 새로운 표현세계를 넓혔다.

둘째, 기계적 특성이 나타났다. 정크아트에 의해 과거에는 단절된 기계의 미가 대두됨에 따라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기계적 미학으로 새로운 조형미를 탄생시키고 기계예술을 도입하였다.

셋째, 자연적 특성이 나타났다. 정크아트에 의해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무시되어온 자연을 인식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자연부산물을 이용한 자연미학은 자연 그대로 또는 그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적 정크요소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정크아트의 영향으로 헤어스타일과 의상은 그동안 잊혀진 현대문명의 혜택과 손실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새로운 표현방법으로 표현세계를 확장시켜 주었다.

주제어 : 정크아트, 헤어스타일과 의상, 빈곤, 기계, 자연

참 고 문 헌

곽미영, 정홍숙(1995), 현대복식에 응용된 초현실주의 표현방법 고찰(1), 의류학회지, 19(2), 380-392.

김명주, 김문숙(1994), 현대복식에 에로티시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의류학회지 18(4), 460-472.

김문숙, 최나영(1998), 패션에 표현된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특성, 복식문화연구 6(2), 163-180.

김민자(1987), 2차 대전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vol 11, no.2, 69-89.

김은주(1991), Junk Art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복(1997), 패션감각탐구I,II, 도서출판 시대
Dick Hebdige, 이동연역(1998), 하위문화-스타일의 의미- 현실문화연구.

백기수(1979),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백영자, 유효순(1989), 서양복식문화사, 경춘사.

Bevis Hillier, 조규화역(1993), 20세기 양식, 수확사.

엄소희(1988), Punk Fashio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송옥외 2(1998), 복식문화, 교문사

유현정(1995), 정크아트의 특성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아, 전해정(1998), 복식의 자연주의 양식에 관한 연구, 복식 37호, 253-271

이효진(1998),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기계미학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1), 복식문화연구 6(2), 261-278.

임영방(1979), 현대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조규화(1985), 복식미학, 수확사.

최지나(1991), Junk Art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ans Rihiter, 김채현역(1994), 다다-예술과 반예술, 미진사.

홍명섭(1991), 전환기의 현대미술, 술학술총서.

Collezioni Donna no. 53

H.H Arnason(1970) Modern Art. new york.

Hair Flair 1997. 1월- 1999. 6월

Henry Rasmusen and Art Grant(1967), Sculpture from Junk, New York : Reinhold Publishing corporation.

Karin Thomas(1979), 野村太郎(譯), 20세기 미술, 東京, 美術出版社.

Dictionary of Art II(1969), Megraw Hill, London.

MODAIN No. 106-111(1997 S/S - 1999 S/S)